

G-TechFair 2014(GIST 기술박람회) 개최!!!

최근 GIST기술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사업화센터는 GIST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한 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GIST 기술박람회인 'G-TechFair 2014' 를 준비 중입니다. GIST의 유망기술이 적합한 수요기업을 만나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저희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기술박람회를 6월경, GIST 오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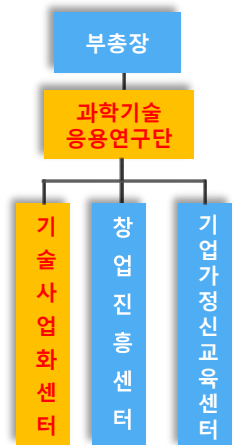
기술사업화센터가 발굴한 유망기술 30건과 각 학과 및 연구소의 대표기술을 전시하여, 우수 전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실용화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G-TechFair 2014를 통하여 원활한 기술이전, 기업과 연구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GIST의 연구역량 홍보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GIST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GTI 변신은 무죄! 달라지는 2014 G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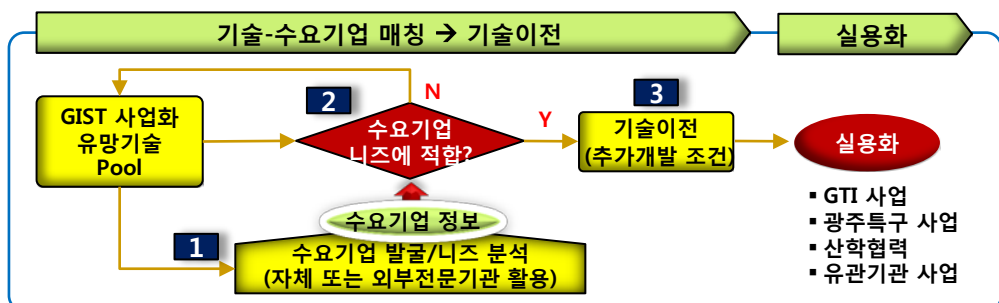
● 과학기술응용연구단으로 재편과 창업생태계 완성!

2005년 과학기술응용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획기적인 성과를 일궈왔던 GTI가 2014년 조직구조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기술사업화센터(이전 과학기술응용연구소의 기능에 맞게 명칭 변경), 창업진흥센터, 기업가정신교육센터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응용연구단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창업생태계의 큰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센터는 기존 3개팀을 통합한 성과확산팀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일원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술사업화센터가 보유하는 기술들과, 창업진흥센터가 보육하는 기업들이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용화 2.0: 선 기술이전 → 후 실용화로 변경!

2014년 기술사업화센터는 실용화 2.0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실용화연구개발을 수행 한 뒤 기술이전을 하였다면, 실용화 2.0에서는 사전에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한 뒤에 이전기술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GIST 기술을 구체적인 산업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됩니다.



2014년 기술이전 개시! 기술사업화센터 All-in-One 전략



2014년, 생명공학부의 '천연 클로로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전용 실시 및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하는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환경공학부의 '다양한 초미세먼지 발생 및 입자 크기 개수농도 평가 기술', 신소재공학부의 '그래핀 제조방법 기술' 등의 총 5건의 기술이전이 성사되었습니다.

4, 5월은 농부들이 가장 바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 또한 발굴된 기술을 수요기업에 소개하고 관심기업과 만나 협상을 해야 하는 등 1년 중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술사업화센터는 금년 기술로 수입 목표를 18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GIST 기술이전, 성장잠재력 무궁무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기술도 사업화가 되어 이익을 창출해야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이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내외 대학들도 기술이전 실적을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GIST가 대내외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는 데에는 기술을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GIST 교수진, 연구원들의 공로가 큼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원의 숨은 공로 또한 한 몫하고 있습니다.

2013년 GIST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 총액이 5억 원에 규모의 기술이전이 1건, 3억 원에서 4억원 사이가 3건으로 큰 액수의 기술이전 실적이 많았고, 학부별로는 정보통신공학부가 6건, 기전공학부가 5건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GIST 구성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에도 우수한 결실을 맺기 위해 저희 기술사업화센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숨어있는 '무림고수'를 찾아라!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시제품제작지원, 실용화과제 수행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주 제작의 요구를 해결하고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시제품제작 외주업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명 '무림고수 찾기!' 해당 분야는 우선 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기초기계가공 등에서 시작하여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테라뱅크를 비롯하여 8개의 우수업체를 발굴하였으며 GIST 연구원이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제품 특성상 외주규모가 작아 아웃소싱 대상업체가 주로 프리랜서나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작더라도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면 현장 실사를 통해 파트너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 지원, 양산 지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GIST 구성원들로부터 우수 업체 추천도 수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추천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주)테라뱅크와 협력하여 제작된 시제품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 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문의: 062-715-3076

